

회칙을 지키는 삶:
정의, 평화, 환경보존(정평환)

Part II: (정평환 활동은)두갈래로

재속회의 정평환활동에는 두 갈래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활동을 하기위하여는 사회악을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 덴 호란 작은형제회 신부님이 2016년 Quinquennial 대회에서 연설했을때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일것이라고 생각했다. 정평환문제는 두갈래 방안으로 접근한다.

몇해전에, 미국 주교회의는 "사랑실천의 두 방향"이란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교회의 웹에 있는대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복음을 실현하는데는, 확연히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인 두가지 방안이 있다: 이는 통상 **사회정의구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들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는방법) 그리고 **자선의 실천**(개인들에게 단기적, 긴급구호를 제공하는 방법)이라 부른다.

우리는 "정의구현방안"보다 "자선의방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잘 할수 있는 것은 자선방법이며 미국주교회의가 말하듯이 "정의로운 정책을 옹호하고 국내외의 고통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는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처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것은 오히려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성격을 형성하는데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사명이다. 믿음으로 또 인간이성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존엄을 깨닫는다. 신앙과 이성으로 가톨릭신자들은 정치생활에서 진리를 구현하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도록 불리움을 받았다. 평신도는 사랑으로 살고 '사회적인 사랑'이 그들의 정치활동에도 활기를 준다고 베네딕토 14세 교황은 말한다. [1]

나아가 회헌은 재속회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규정한다: 제 22 조 1.(회칙 15)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은 '공적인 생활 영역에 참여할 것이다.' 가능한 한, 회원은 법을 만들거나 정의로운 질서를 위하는 일에 앞장선다. 제 20 조 1.(회칙 14) 세속현실과 활동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림을 받은 회원은 성소 때문에 사회와 교회의 양쪽에 속해서 살아간다. 1 회, 2 회, 재속회, 그외 평신도 그룹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구성원이 소외되는 원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를 본보기로 삼고 그 영성에 고무되어 그를 따르는데 앞장서서 참여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 어떤이는 자선을 강조하고 다른이는 구조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각자는 방법을 자기한테 맞게 선택하여 봉사한다. 그러나 단체로서의 재속회는 두가지를 다 택한다. 해마다 국가형제회는 많은 돈을 이런저런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자선방법을 선택). 반면에 프란치스칸 가족안에는 우리의 의무인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도록 도와주는기관들(정의구현 방법의 선택)이 있다. 즉 FAN 과 FI 이다.

FAN 과 FI 의 핵심임무는 대변하는 일 즉 약자의 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일이다. 대변자로서 FAN 과 FI 가 특이한점은 국내외의 정책수립자들과 또 “현장”에서 뛰는 프란치스칸들과 횡적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봉사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생생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FAN 과 FI 는 프란치스칸 가족에게 이 세상 불의문제에 눈뜨게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한다. 그러므로 재속회원은 FAN 과 FI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프란치스칸 활동망(FAN)

복음정신과 프란치스코, 클라라의 모범에 따라 FAN 은 평화, 생태보존, 빈곤, 인권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모든 프란치스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지난 10 년간 FAN 은 사회정의에 대해 프란치스칸들을 일깨우고 교육시켜왔다. 영어로 Franciscan Action Network 이란 세 단어가 FAN 이 하는 일을 잘 설명해 준다.

FAN 은 설립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프란치스칸적이다. FAN 은 프란치스칸 가족을 통해서 잉태되고 탄생되었다. 프란치스칸의 모든 가족들이 FAN 의 발족을 위하여 놀랄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프란치스칸 여섯 가족대표들과 FI 가 로마에 모여 미국에 프란치스칸 정평환 조직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7 년 HOLY NAME 관구의 지원으로 미국에 있는 전 프란치스칸 가족들이 볼티모어에 초청되었는데 150 이 넘는 프란치스칸이 호응했다.

나는 미국 FAN 의 시초가 된 이 프란치스칸 모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활기찬 토론도 하였다.[2] 막판에 프란치스칸 영성으로 사회개혁을 이루자는 계획안을 작성해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렇게 FAN 은 탄생하게 되었다.

FAN 은 프란치스코회의 여러 가족이 회원인 이사회의 지도와 많은 프란치스칸 단체들의 지원과 협조로 그후 쪽 우리 삶의 복음화를 이루었다. 미국가형제회는 처음부터 FAN 의 법적인 구성원이었다. 재속회원들도 개별적으로 첫 상임위원회, 실무위원회, 이사회에 봉사하였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FAN 이 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다.

FAN 은 활동단체이지만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망구성이 핵심이다. FAN 안에는 다른종파의 프란치스칸, 타종교신자등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

현대에는 사회 영역에서 널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공동 활동을 하도록 부름 받고 있으며, 더구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 더 그러하다.[3]

FAN 회원은 이 네트워크에 속해있다. FAN의 구성원들은 공적영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한 정체성을 보이며 프란치스칸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연대)하고, 같은 활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구현 활동은 FAN의 전유물이 아니다. FAN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사는 중요한 방법이다.

지난 8월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데이빗을 FAN 이사회에서 일할 새 대표로 임명하였다. 데이빗은 전에 DEVINE MERCY 지구형제회 회장을 지냈다. (1)데이빗의 지구회장 경험과 (2)국가형제회를 대표하는 FAN 이사로서의 그의 비전과 목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섬기는 지도자

데이빗의 지구회장 임기중 최우선순위는 서약예절서와 회칙에 명시되어 있고 프란시스 교황의 뜻인 *재속회원을 “교회의 얼굴”로 바꾸는 일이었다.* 지구에 속한 모든 형제회 회원들은 이 우선순위를 실현하기 위한 일치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세 형제회가 무숙자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고 또 다른 형제회는 성당 지하실에서 하던 기도모임에서 정의구현활동 모임으로 탈바꿈했다. 어떤 형제회는 지구가 주관하는 주교 사목교서 “복음실천”에 근거한 교육에 참여한 후 가두선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지구에서 제일 큰 형제회에서는 몇개의 지역봉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초기양성”내용에 이 봉사활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경험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그는 사람이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답했다. 호시피스 봉사를 하면서 개개인은 한없는 존엄성을 가진 고귀한 창조물이란 것을 배웠다. 누님인 죽음을 맞는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인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이 경험이 나를 자기중심에서 타인중심으로 바꾸는 촉매가 되었다. 서약 16년차인 나는 그 동안 조용히 프란치스칸 영성을 공부하고 묵상할 기회가 있었다. 프란치스칸 영성은 나와 하느님, 나와 가족, 나와 공동체 그리고 나와 내가하는 일과의 관계를 알려주었고; 이 관계는 늘 한결같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이런 중단없는 변화는 성령께서 재속회원을 어두운 교회지하실에서 현실세계의 밝은 빛속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변화였다.

원하는 바와 목표

- FAN 이사회는 FAN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꾸준히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재속회원과 소통할 것. FAN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정보때문에 오해가 생겨 재속회와 FAN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재속회와 FAN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 꾸준히 일관된 소통이 있어야 재속회가 FAN을 정확히 이해 하고 지원할수 있을것이다.
- FAN은 재속회는 물론, 교구와 본당,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다른 단체에 파견된 친선사절로 행동할것.
- FAN이 인정받고 후원을 받으려면 우선 참여하여야한다. 형제회가 FAN을 돕도록 지역형제회에 들어가 밑바닥에서 부터 활동할 것. 재속회원들이 활동이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되면 FAN은 더 큰 도움과 인정을 받을 것이다. FAN의 경험과

소통수단을 활용하면 단위형제회의 활동과, 국내문제를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회칙은 재속회원이 공공영역에서 정의를 증진할것을 요구한다.

- 옛부터 프란치스칸들이 써 왔던 방법인 “구결”을 할 것. FAN 을 돕기위한 재정적 지원.
- FAN 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재속회 정평환계획과 관련있는지에 대해서 각급 형제회를 계몽할것
- 지구형제회 정평환 담당자와 한 목소리를 낼것 국가형제회의 종교간 일치 담당자와 협력하여 프란치스칸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을 FAN 의 사업에 참여시킬것
- 사회교리에 대해 꾸준히 자기양성을 하고 다른 재속회원과 나눔을가질것
- 기도하고 또 기도할것

FAN 이사들은 데이빗에게 “FAN 봉사를 하기위하여 어떤 개인적인 자격과 자질이 필요한가?” 라고 물었는데, 그는 의외로 “복음적 삶”이라고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토빗의 한 구절을 인용해 답하겠습니다.

“*애야, 무슨 일이든 조심해서 하고, 어떠한 행동이든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하여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이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에게 남는 것은 다 자선으로 베풀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조언을 구하고,유익한 것이면 무슨 조언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언제나 주 너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 주십시오,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분께 간청하여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또한 달리 원하시면 저승 밑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신다.*”(토빗 4:14-19, RSV)

Franciscans International

FI 는 일반적인 상담역할을 하는 비영리, 비정부 국제인권단체이다. FI 의 비전은 지구공동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원은 공평하게 분배되고, 환경은 보존되고, 국가와 민족들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FI 는 크고 다양한 프란치스칸 가족을 공통된 이념으로 한데 묶는다. FI 는 프란치스코 가족들이 유일하게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가족회의에서는 FI 이사회에 대표를 보낸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백성들의 통치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FI 는 모든국가와 세계 당국자들에게 정책을 수립할때 복음적 가치를 염두에 두라고 요구한다.

FI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회 밑바닥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FI는 그들을 돕기위하여 국가차원, 지구차원, 국제차원의 능력향상 워크숍을 조직한다. FI는 밑바닥 인생들도 국가차원의 로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한다.

재속회원인 **아센시오**는 엘살바도르에서 온 정평환관계자인데 FI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산드라 아센시오**는 최근 뉴욕의 지속적 개발에 대한 UN 고위급회의에 참석했었다. 여기 2013년에 **제니퍼 렌트퍼**가 **아센시오**를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렌트퍼: 미국과 캐나다에 오셔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센시오:저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종교간 일치날에 많은 신자들과 나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무되어 우리와 연대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서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런일을 할때에만,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물, 공기와 땅이란 것을 잊지 않게됩니다.

렌트퍼:엘살바도르에서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위하여 투쟁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아센시오:완전한 투신입니다. 나는 일을 영적확신을 갖고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에 따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한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가 무슨일을 하든 하느님을 위해 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봉사와 식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가치있는 일이란 것을 애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일이 안일어 나야죠. 왜냐하면 동기를 상실하고 힘이 빠질지도 모르니까요.

렌트퍼:무엇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줍니까?

아센시오:모든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변호사이고 과학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연대와 화합이 삶의 원칙이라고 믿기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공통된 복지를 향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Part III:겸손하고 인간답게

형제자매들은 자기들 소명에 맞게 겸손하고, 평화롭고, 잘난체하지 않고, 온화하고 겸손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 있던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고 다른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프란치스칸답게 눈에 띄게 “주님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야 한다.(필리피 4:4 참조) 그리고 서로 인사할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라고 말한다.

위 구절을 읽을때 마다 상반되는 생각이 나에게 든다. 사랑과 기쁨찬 프란치스칸 모임을 생각하면 행복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답지 않는” 프란치스칸들의 대화, 특히 사회매체에서의 대화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입조심은 쉬운일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가볍게 말해버리고 곧 후회하지만 이미 누구인가 상처를 입인 뒤이다. 그러나 사회매체가 생기면서부터 프란치스칸들이 쓰는말은 더 저질이 되었다. 좋은 뜻으로 별생각없이 한다는말이 쉽게 쌍말이 되고 “우리와 그들”을 편가르는 말을 내뱉게되어, 슬프게도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한다. 모든것이 빨라짐에 따라 정의감에 넘쳐 분노하는 것도 빨라졌다. 그래서 잘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고 비난한다. 대화는 곧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옳은가?”로 되어 버린다. 틀린 정보와 왜곡된 진실이 사실처럼 둔갑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남을 헐뜯고 거짓말을 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프란치스칸은 그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한다. 우리는 “점잖고, 평화롭고, 잘난체하지 않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모든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해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려하는가? 이런것이 큰 걱정거리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 암흑속에 빛을 밝힐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몇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서로 용서하자.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다. 둘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회원은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6]라는 회헌 26:2 를 상기하자. 각급형제회 봉사자의 의무는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창설자의 카리스마에 충실함을 담보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양성을 하자. 양성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혀를 놀리는 문제에 대한 묵상은 야고버서 3 장에서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대한 묵상은 가톨릭교리서를 읽을 것이다.[7] “사회매체에 관한 교령”을 보면 교회는 인간에게 여러모로 유용한 놀라운 기술을 언급하면서도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또 자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도록 이 매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는 알고 있다.”[8]고도 말하고 있다. 1963년 이후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 교령은 우리를 사회매체에 대해 생각해 보게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영어 단어 THINK 가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상기시켜준다. T-H-I-N-K; 진실(T)인가? 도움(H)이 되는가? 고무적(I)인가? 필요(N)한가? 친절(K)한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우리는 기도에서 힘을 얻는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기도한다. 성령으로 숨을 쉴때, 호흡은 하느님의 선물이 된다. 우리는 말과 행위로 거룩한 숨을 내어쉬자. 언어의 성스러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를 상기하자.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11-19

Part IV: 화해 **데이빗 포스터 OSB[9]**

해지기 전에 원수와 화해하라

마음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다른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사람과 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후 우리는 다른사람에게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민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남이 왜 잘못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빌라도역할이 더 마음을 편하게 한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고 판단해서는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판단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과 자리를 같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분명한것은 ‘옳고그름을 판가름’ 할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홀로 의로운 인간이신 예수는 직설적인 말과 행동으로, 무고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약자 편에선 표양을 실제로 보여주셨다. 심히 역설적이지만 화해의 방법을 이해하려면 위의 예수님의 표양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화해는 권리를 주장해서 될수 없고, 상대방보다 먼저 내가 화해의 제스처어를 취해야 한다.

화해는 다른사람의 강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그들과 같은입장이 되주는 것, 그리고 내 입장만 주장하지 않고 치유해야 할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적과 단번에 화해할 수는 없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친해 질수는 있다. 그러나 친구로 대하고 생각을 바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신뢰하면 결국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한다면 삶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변화도 가능하지 않다.

화해는 자기주장을 자제하는 것이다;그러나 진실은 주장해야한다. 주장은 하되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하도록해야 한다. 진실은 누가 옳은가 겨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폭력적) 방어벽을 누그러트려 내 입장을 이해할 기회를 주는것이어야 한다. 무조건 양보만 하라는것이 아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예수님처럼 대응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새생명을 주는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Part V: 정평환의 목적

FUN 매뉴얼의 정평환에 관한 장은 Pat Brandwein-Ball 이 썼는데 재속회원들에게는 훌륭한 양성자료이다.

정평환의 목적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실천사항*:
정평환의 목적

- A. 특별한 자리인 형제회내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 열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의 행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어나는 개개인의 회개(변화)가 전체 프란치스칸 삶을 형성한다.
- B. 서약한 삶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대하면서 인간존엄성을 무시하는 무엇이나 프란치스칸답게 대응하고, 우리 자신부터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한다.

- C.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공동선에 따라 살도록 도울 것. 즉 서약한 재속회원은 모든 창조물에 이로운 일을 할 것이며 공동체의 상호의존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D. 재속회원들과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할 것. 재속회원들이 삶에서 더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세계차원의 형제회 건설)

마음의 자세와 실천사항

- 회칙서문과 2 장을 읽고 묵상하라. 문장구성과 동사의 강조점에 유의하라. 2 장을 일주일에 두세번 읽은 다음에, 매주 한번씩 읽어라. 읽을 때마다 새로운것을 듣도록하라, 조문을 한조한조 따로 읽지 말고 함께 묶어서 차례차례 읽어라. 상응하는 회헌조항 특히 17-27 조를 읽어라.
- 교회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교회가 원하는 바를 나는 매일의 회개생활에서 하고있는가?
- 교회생활에서 내가 활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 형제회생활에서 내가 활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1]미국가톨릭주교회의 “신심깊은 시민”과 “하느님은 사랑이시다”29 항

[2]FAN 상임위원회, 2007 년 전략계획 초안서문

[3]일치교령 12 조

[4]정규 3 회 회칙 5 장 “섬김과 일의 방법” 20 조

[5]재속회 회칙 13 조

[6]재속회 회헌 26 조 2 항

[7]가톨릭교회 교리서 2464 항에서 2513 항까지 제 8 절 여덟째 계명 “ IV 진실의 존중” 과 “V 대중 전달 수단 사용”

[8]사회매체에 대한 교령 2 항

[9]데이빗 포스터저 “Deep Calls to Deep” 한단계 높은기도방법 125 쪽부터(2007 년 Continuum 사 인쇄)